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보감위, 보험회사에 지급여력 확보 지시

□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위)는 올해 12월 말까지 모든 보험사들에게 지급여력 비율을 확보할 것을 강제한 <보험회사 지급여력 관리규정>을 발표함.

- 중국 내 모든 보험회사들은 총자산을 기초로 금융채, 기업채, 주식, 증권투자기금, 기초시설투자, 해외투자 등 법률로 규정한 투자항목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는데, 주식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여 총자산에 반영하고, 그에 따른 운용자산별 비율을 산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- 보감위는 장부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을 계산할 경우 지급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,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가를 반영하여 정확한 총자산 규모를 파악하고자 함.
- 특히, 중국 내에 다수의 지사를 설립한 외자보험회사에게는 각 지사들의 지급여력을 총체적으로 계산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, 10월 31일 기준의 지급여력 보고서를 보감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함.

□ 보감위는 또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최저자본을 계산하는 방식을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특성에 맞게 표준화함.

- 생명보험회사의 경우, 최저자본은 장기 인보험 업무의 최저자본과 단기 인보험 업무의 최저자본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함.
- 손해보험회사의 최저자본은 비생명보험 보장성 업무의 최저자본과 비생명보험 투자형 업무 최저자본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함.
- 보감위는 그동안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던 최저자본 산출 방식을 명문화함으로써 최저기준비율을 채우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함.

(중국증권보 11/1,

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10/31)